

# 전주만의 지속가능 관광 경쟁력 강화

## 시, 지역관광추진조직에 선정된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사업계획 보고회...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이끌 추진조직이 가동된다.

전주시는 '2021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으로 선정된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 임준희, 장유성)'와 함께 16일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은 국내·외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도적인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데 취지가 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된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국비 1억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관광사업을 펼치게 된다.

세부적으로 ▲안전여행 문화정착을 위한 비대면 스마트오더 음식점 구축 사업 ▲전주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음식 관광상품 공모전 및 수상작 관광상품화 ▲전주밥상을 주제로 한 미니 어치 요리 영상 공모전 및 기념상품화 ▲국악, 성지순례, 도서관 등 전주만의 이색 도심관광 상품 발굴을 위한 마이리얼트립-전주편 개발 및 출시 사업 등이 기획됐다.

이외에도 세미나,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관광산업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전주시는 '2021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으로 선정된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함께 16일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민들의 관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각 분야 전문위원 6명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전주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

다. 장유성 대표는 "이번 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고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에 지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진정한 여행도

시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만들고 누리는 도시"라며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으로 글로벌 여행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전주를 지속가능한 여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수목 훼손' 경찰 수사 의뢰

## 치료 위해 영양제 투입 등 조치

전주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수목 훼손사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목 훼손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미동 마을 수목, 평화동 아파트 조경수목, 중화산동 주택단지 내 수목 등 3곳으로, 모두 수목 밑부분에 1~3개의 인위적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시는 이 수목들이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하게 됐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초제 등 화학적 약물이 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미동 마을 수목의 경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식재한 도로변 수목이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서 직접 수사 의뢰 및 수목 치료에 나섰다.

이와 관련 수목을 훼손한 행위자는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시는 이와 함께 전미동 수목은 아직 생육 불량 상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양제 투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주택단지 및 아파트에 피해수목이 발생했을 경우 영양제 투입 등 수목 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전주시가 천만그루정원도시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인 상황에서 이 같은 수목 훼손 행위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찾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합동점검반 가동

최근 예코시티와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릿대·밀대 등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보리·밀을 재배하는 조촌동과 여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고자 농정·환경·청소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보리·밀을 수확한 직후 행해지는 보릿대와 밀대의 소각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영농부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또 소각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

전주시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5일간 ▲산모 영양관리 및 감염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 기준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한 차례 확대된 데 이어 다시 160% 이하까지 늘어났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화귀 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등의 경우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복수급을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할 희망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와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주시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여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모든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출산가정 산후 건강관리 ▲셋째아 이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만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다문화가정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전주시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언어·정서·일자리 등 전방위 밀착 지원에 나섰다. 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총사업비 6억7000만 원을 투입해 한국어교육부터 부부상담,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 내 결혼이민자 수는 2553명, 다문화가정 인구수는 8798명으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 부부간 상호 이해 부족, 자녀교육, 일자리 문제, 의료문 등으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와 협력해 언어, 정서,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언어 분야의 경우 한국어첫걸음반, 자녀학습지도한국어반,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수준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중국·베트남·필리

핀·네팔·캄보디아어 통·번역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언어발달 지도사가 파견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교육을 돕고 있으며, 선배 이민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언어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행복플러스 부부상담·교육과 함께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등이 추진된다.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출신자들의 자조모임도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문화 신혼부부교육과 다문화가정 아버지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한글·파워포인트 자격증반 ▲운전면허증 필기반 ▲화력취득반(검정고시) 등 다문화가정의 취업지원 교육도 펼치고 있다.

향후 시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및 지원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